

SI산업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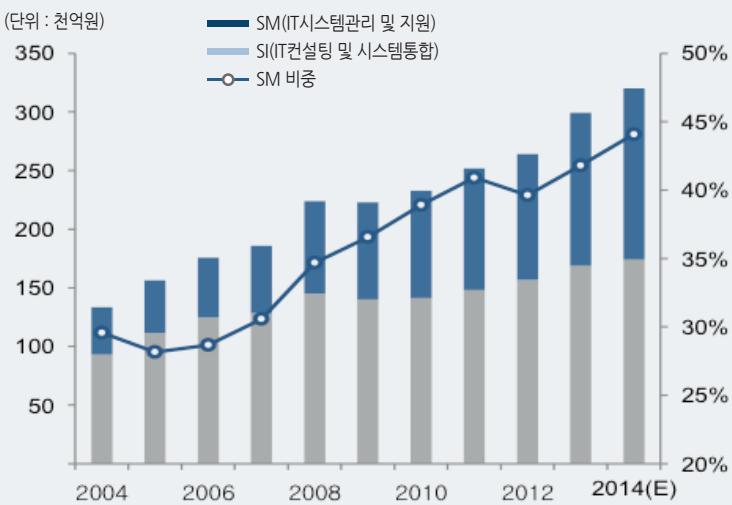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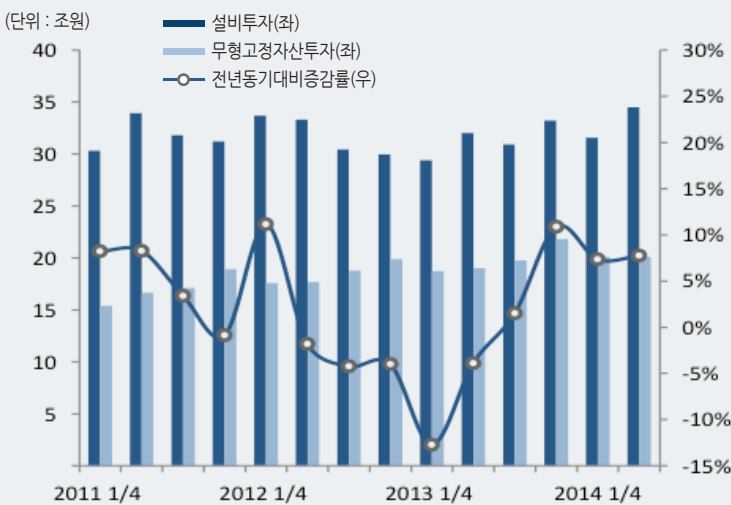
이지웅 | 평가 3실 책임연구원 | 02-368-5475 | jwlee@korearatings.com

2000년대 후반 이후 SI업계 전반의 성장세는 둔화되는 양상이나, 상위권 업체를 중심으로 Captive 기반의 수요안정성, IT서비스의 해외수출 확대 등의 요인에 기반하여 안정적인 영업실적이 유지되고 있다. 또한 대형 업체 위주의 시장구도 고착화로 인해 시장 수요 확대의 상당 부분이 일부 대형 SI업체로 귀속되고 있어 업계 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다만 2012년 5월 SI산업의 생태계 개선을 목적으로 개정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SI업체의 공공사업 참여가 제한되면서 해당 업체들은 공공부문의 매출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사업 확대,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통한 토털 솔루션 경쟁력 제고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설비투자 규모는 전년대비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부진한 수준으로, 전통적 SI 투자수요 위축

2011년 하반기부터 2013년에 이르기까지 대외경기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경기불황 여파로 SI 투자 수요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설비투자 규모가 크게 위축되었다. 2014년 들어 대내외 경기가 전년대비 회복세를 나타낸 가운데 기업들이 집행시기를 이연하였던 투자를 일부 재개하기 시작하면서 설비투자 규모는 다소 개선된 모습이나, 제조업 전반의 유희설비 증가, 경기불안 요인에 따른 기업 투자심리의 더딘 회복 등으로 본격적인 회복세는 여전히 제약되는 등 SI업계는 전반적으로 불리한 영업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설비투자 및 무형고정자산투자 추이 (좌: 연간/우: 분기)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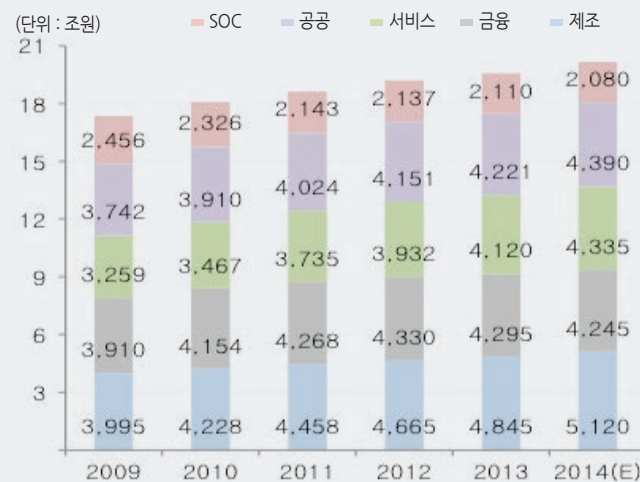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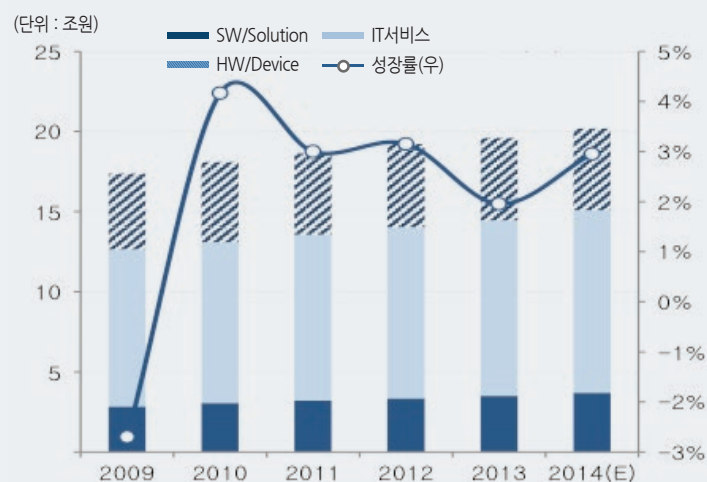
다만 신규 SI 투자수요는 상당히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구축 이후 필수적인 유지보수 수요로의 전환, 기존 IT시스템의 안정화 및 고도화, 운영관리 효율화 등과 같은 보수적인 투자 위주로 IT서비스 투자가 확대되면서 2014년 국내 IT서비스 생산액은 약 7%의 양호한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실제로 SM부문은 생산액이 2014년 약 12%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그 비중이 약 45% 수준까지 확대되는 등 전체 IT서비스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러한 유지보수 중심의 보수적 투자 패턴 지속은 성숙기에 진입한 SI산업의 성장성 측면에 다소 부정적이나, 경기 호불황과는 무관하게 기업들의 IT투자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안정성은 과거 대비 제고된 것으로 판단된다.

SI산업의 저성장 기조 지속, 유지보수 및 신규 IT서비스 수요 등에 힘입어 일정 수준의 성장세는 유지

SI업체의 주사업 분야인 기업 IT분야로 한정하여 살펴보면, SM물량에 기인한 시장안정성 제고로 일정 수준 중대형 SI업체 실적의 하방경직성은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IT 서비스 시장의 성숙기 진입과 더불어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신규투자 위축 영향이 이어지면서 업계의 구조적인 성장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2014년 전체 시장규모는 3% 성장에 머물렀으며, 이는 전년(2% 성장)에 비해 소폭 개선된 모습이나 ERP 등 전산시스템의 고도화 및 금융권 차세대 시스템 구축 일단락, 기업들의 보수적 투자 패턴 등으로 대규모 SM물량 수요가 감소하면서 여전히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신규 투자수요 감소로 HW/Device 시장은 전년대비 시장이 축소되었으며, 산업별로는 금융시장과 SOC시장이 전반적인 업황 부진과 비용 절감 여파, 주요 투자 일단락 등의 영향으로 시장 규모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다만 유지보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 ERP 시스템의 고도화 수요 확대와 모바일 부문,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정보보안, 융합IT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IT서비스 수요 발생에 힘입어 IT서비스 및 SW/Solution을 중심으로 전체 시장은 일정 수준의 성장세는 유지하고 있다.

분야별, 업종별 시장 규모



주) 소비자용 시장과 통신서비스 시장 제외자료 : 각사 감사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자료) KRG IT 시장백서.

매출성장세는 둔화되었으나, 수익성 중심 경영으로 업계 전반적으로 견조한 이익창출력 유지

주요 SI업체(당사 Peer group 23개사 기준)의 매출액은 민간부문의 설비투자 위축과 신규 SI프로젝트 감소, 대기업 계열 SI업체의 공공시장 참여 제한과 같은 규제 등 비우호적인 영업환경 조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상당히 둔화되었으며, 소속 그룹의 사업안정성과 대외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열위한 중소형 SI업체의 경우 이러한 추세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상대적으로 높은 마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대내 유지보수(SM) 물량이 증가한 가운데, 대외시장에서의 수익성 중심의 선별적 수주전략 지속, 저수익 공공물량 축소 등에 힘입어 업계 전반의 영업수익성은 전년대비 소폭 개선되는 등 안정적인 이익창출을 기록하고 있다.

Analysis - 산업분석 ①

SI산업 내 양극화 현상 지속

높은 마진 실현이 가능한 대내 수익기반을 고정거래처로 확보하고 있는 대형 SI업체가 축적된 레퍼런스와 기술력 등을 바탕으로 해외/대외 사업과 IT서비스 관련 신규 사업에서도 강세를 보이면서 상하위 업체간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삼성SDS, LG CNS, SK C&C 등 상위 3사는 당사 Peer Group 합산 매출액 대비 60% 이상의 매출비중을 유지하면서 최근 3년간 11%를 상회하는 높은 매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기타 업체들의 매출은 역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중소형 업체는 경쟁강도가 높은 대외 경쟁시장에서 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가운데, 열위한 사업역량 및 프로젝트 수행능력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수익성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밖에 없어 수익성의 양극화가 고착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3년부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공공사업 참여가 제한되면서 중소형 업체의 사업 여건은 다소 개선되었다. 그러나 대기업 계열 대형업체의 경우 공공부문 비중이 크지 않고 확고한 대내 수익기반을 바탕으로 수주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어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은 반면, 중소업체의 경우 공공시장의 경쟁강도가 매우 높아 여전히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제한됨에 따라 대형-중소형 업체 간 격차는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업체 매출 및 수익성(EBITDA마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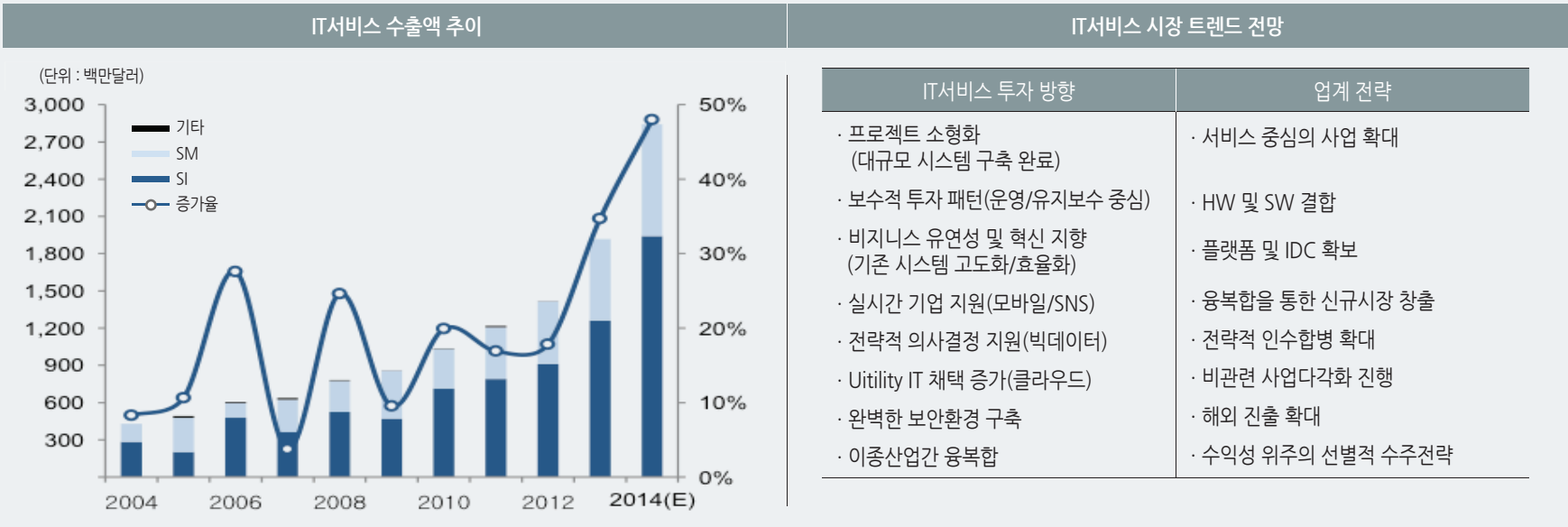
주) Peer Group 23개사 대상, 2013년 3분기 및 2014년 3분기는 분기실적 미공시 업체 제외 13개사 기준.

자료) 각사 감사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시스템 고도화 투자,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등 신규 IT서비스, 수출 등을 중심으로 일정 수준의 성장세 유지할 전망

전반적인 경기 및 설비투자 부진의 영향으로 여전히 기업의 전통적인 IT투자에 있어 신규 물량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 수요처들의 IT 관련 투자성향이 주기적인 업그레이드와 유지보수 중심의 보수적 패턴으로 전환된 가운데, 대규모 시스템 구축 일단락 이후 SI시장에서 프로젝트의 소형화 추세가 뚜렷해지면서 SI산업의 저성장 기조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향후에도 전체 SI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는 요인은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보안, 모바일 기반의 IT서비스 등 신규 영역에서의 투자수요 확대로 판단되며, 상위권의 SI업체를 중심으로 영위되고 있는 해외사업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수출액 증가가 전체 시장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야별로는 금융 및 SOC 시장이 정체될 가능성이 높지만, 제조 및 서비스업에서 대기업 및 중견그룹을 중심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CRM 및 SCM프로젝트, ERP시스템 재구축 및 모바일 오피스 구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전체 IT서비스 시장 성장을 이끌어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체 SI산업은 2015년에도 낮은 수준이나마 꾸준한 성장기조는 유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KRG IT시장백서.

SI업계, 저성장 구조 탈피와 규제 이슈 대응을 위한 사업다각화 노력 지속

한편, 중대형 SI업체들은 시장의 저성장 구조를 탈피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신규 사업영역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내부거래 등과 관련한 최근의 규제환경 변화는 업계의 사업다각화 노력을 더욱 촉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크게 세 가지의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첫째는 IT기술을 매개로 이종 산업과의 컨버전스를 통한 신규 사업영역 발굴, 둘째는 해외시장 진출, 셋째는 비 IT분야로의 사업다각화이다.

구체적으로 대부분의 업체들은 공통적으로 자동차(인포테인먼트), 건설(스마트홈), 통신(클라우드컴퓨팅), 전력(스마트그리드), 의료(U-Health), 물류(공급망 관리), 금융(NFC, 스마트브랜치),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등 IT기술 기반의 융합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SDS, LG CNS, SK C&C 등 소수의 상위 SI업체 기업은 축적된 레퍼런스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물류, 교통시스템, 공공 SOC 등의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또한, 포스코ICT의 엔지니어링 및 LED사업, 한화S&C의 에너지사업, SK C&C의 중고차 유통사업 등 일부 업체의 경우 소속 그룹 차원의 신규사업 발굴 노력과 맞물려 비관련 다각화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성장기반 확충이 긍정적 요인이나, 신규사업 관련 사업리스크 확대 및 투자 부담 상존

이는 전통적 SI산업에서의 성장이 둔화된 업계 전반의 새로운 수익기반 확보가 긍정적 요인으로 판단되나, 사업 및 재무리스크는 과거 대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SI업체들의 신용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는 경쟁이 제한적인 계열물량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보유하고 있는 점이지만, 사업다각화로 인해 신규 경쟁환경에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사업의 경우 국내 시장에 비해 사업리스크가 높아 관련 부문의 비중 확대가 개별 SI업체들의 사업안정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재무적 측면에서도 신규사업 관련 지분 인수, 데이터센터 건축, 해외사업 확대에 따른 운전자본 부담 증가 등 신규사업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투자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에도 잉여현금 유보 여력은 제약될 것으로 보여 전반적인 재무레버리지는 과거 대비 확대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